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엄철찬	소속(학부/과)	전자공학과
파견 학기	2019학년 1학기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하일브론 대학교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휴학하는 동안 무역회사에서 일하면서 독일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외국인을 만나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소통을 하는 것이 많이 흥미로웠고 자연스럽게 외국, 그 중에서도 독일에 실제로 가보고 싶단 생각에 교환학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서류는 그때 그때 상대교에서 원하는 것을 스캔하여 상대교의 원스톱서비스 같은 사이트에 첨부하면 됩니다. 사이트 주소는 메일로 알려줍니다.

비자는 학기 초에 상대교 국제교류원에서 교환학생들만 따로 모아 한 번에 시청가서 발급받습니다.

항공권은 나중에 돌아오는 비행기 날짜를 변경할 수 있으니 왕복항공권을 추천합니다.

수강신청은 따로 하지 않고 원하는 수업시간에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기 말 시험신청기간에 시험신청을 하셔서 시험을 쳐야 학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숙사신청은 상대교 서류준비 과정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규모는 금오공대와 비슷합니다. 캠퍼스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의 캠퍼스가 유로플라츠 라고 불리는 캠퍼스이고 밑이 손하임 캠퍼스입니다. 기숙사는 손하임 캠퍼스가 가까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후는 대체로 한국과 비슷하며 건조합니다. 피부각질 일어납니다.

밑의 사진과 같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동물(백조, 오리, 고슴도치, 쥐, 양, 다람쥐 등)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독일어 수업은 필수입니다. 출국하기 전 독일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 가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목 중에 microcontroller 라는 c언어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추천을 하는 이유는 교수님께서 한국에 많이 와보시고 한국학생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십니다. 성적을 정말 후하게 주십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Max-Plank street.27 기준으로 한 달에 약 300유로 매달 초에 기숙사비로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생활비는 개인차가 너무 심하지만 여행, 외식 그리고 쇼핑을 안 하고 소고기를 매일 안 먹는다는 전제 하에 독일 식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매달 초에 시청에서 나눠주는 720유로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여행 다니기 좋은 위치인 독일까지 가서 여행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 경우는 6개월 비행기값 다 포함해서 1000만원 들었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처음 2~3주 동안 비자발급 포함 여러가지 문서 관련 서류 일들을 도와줄 도우미 학생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축구관련 동아리가 특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운동들을 할 수 있는 동아리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내암벽이 좋았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독일이 일처리가 많이 느립니다. 사람들이 여유롭습니다. 보행자 절대 우선 교통문화입니다. 잘 웃고 제스처가 멋있습니다. 음식이 대체로 짭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각 나라의 모국어를 쓰지 않고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교환학생들끼리 축구게임 토너먼트 하는 장면

